

### 지철 스님의 **도상**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 난초꽃의 웃음을 보았는가

### 고전 속 난초 이야기

굴원은 고대 중국 전국시대 당시에 초나라의 시인이다. 동정호의 원류인 벽라(汩羅)에 돌을 안고 뛰어들어 자결한 비운의 인물이기도 하다.

그를 기념해서 단오절이 생겼다는 일화가 있는 것을 보면, 한국과 중국에 많은 영향을 끼친 시인이 분명하다.

굴원은 난초를 주제로 시를 쓴 최초의 시인이라고 한다. 그가 쓴 최고의 명문인 '이소'를 보면, 굴원이 사군자 중에 여름을 상징하는 식물인 난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있다.

"여기자란지구원해(余既滋蘭之九畹兮)-나는 이미 구원의 밭에 난초를 키우고 / 우수해지백무(又樹蕙之百畝)-또 백무의 밭에 해초도 심었다"라고 한 부분을 읽어보자. 백무라 하면 만평 정도의 밭이고, 9원일 경우 1원을 12무라 치면, 108무니가 만팔백평의 밭이라고 볼 수 있다. 그토록 넓은 밭에 한 줄기에 한 꽃이 피는 난초를 키우고, 또 한 줄기에



법관 스님의 '난초'

聲未聽)-꽃의 웃음소리는 들을 수 없고, 조제루난간(鳥啼淚難看)-새의 울음소리는 보기 어렵다'는 재미있는 글귀가 있다. 꽃이라는 것은 워낙 예쁘고 향기가 좋은 것이니 내가 기분이 좋으면 웃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기는 하다.

그런데 더욱 재미있는 일은 이 시의 원작자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그 중 작자로 추정되는 한 명은 매월당 김시습(金時習, 1435년 ~ 1493년)인데 세상 때 지은 시라는 기록이 있고, 다른 한 명은 서사시 동명왕편을 지은 백운거사 이규보(李奎報, 1168년~1241년)인데 6살 때 이 시를 지었다고 전한다.

두 명 다 어릴 적부터 신동이자 천재로 이름난 분들이니 누가 지었던 별 상관 없다고 생각되긴 하지만 두 분의 후손들더러 누가 원작자인지 결정하라 고 하면 문중 간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겠으니 그냥 넘어가기로 한다.

사실 육체라는 동굴에 갇혀 사는 우리는 모르고 살지만 꽃들과 나무들에게 화정이라는 요정들과 목신이라는 존재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아름다운 꽃들이 핀 정원에는 수많은 꽃오정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목신들이 나무 위에서 사람들을 내려다 보고 있다고 한다. <담마빠다>의 일화를 보면 목신들이 많이 나오고, 중국의 사대기사인 <요제지>에 보면 모란의 요정이 사람과 함께 생활한 기록이 나오기도 한다.

이 그림은 강릉 능가사의 법관 스님이 그린 난초그림인데, 정식으로 화가수업을 받지 않은 본인에도 환한 난초꽃의 미소를 그려서 깜짝 놀랐다.

수행과 더불어 계행을 잘 지키시면서 사시는 스님이시라 그런지 항상 볼 때마다 존경의 여물을 금할 수 없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 부처님의 깨달음 절정 '삼매도'에

### 신장식 개인전... 11월 27일까지



35살 나이에 깨달음을 얻은 고타마 싯다르타의 얼굴은 평온했다. 생로병사에 대한 의문을 풀고 세상의 번뇌를 초월한 그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길을 나선다. 고훈에 빠진 중생을 구원하고자 전법의 길에 나선 부처님. 그는 그렇게 열반할 때까지 길 위에 서서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졌다.

깨달음을 얻은 35살 부처님의 모습이 시공간을 초월한 '삼매'에 담겼다. 불교미술을 총망라한 삼매의 모습을 담아낸 신장식 교수(사진)의 개인전이 11월 27일까지 종로구 삼청로 스페이스선+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경주, 금강산, 인도, 간다라 미술 유적지 파키스탄까지 불상의 다양한 모습을 11점의 작품에 담아 선보인다.

"이번 작업을 위해 국내는 물론 간다라 미술을 살펴 볼 수 있는 파키스탄부터 인도 티베트 등을 여행하면서 불상의 모습을 다각도로 연구했습니다. 그 각각의 형태는 다르지만 저는 그곳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성도 직후 부처님의 모습이 대부분의 불상에서 담겨 있다는 것이죠. 삼매에 든 부처님 그 깨달음의 절정을 작품으로 표현해 냈습니다"

아리랑 금강산 등 한국 전통에 근거한 작품을 그려낸 작가가 불상에 천착하게 된 것은 북한 국보 문화 유물 제 102호로 지



조선시대 천체도를 배경으로 간다라 불상을 작품으로 승화한 '삼매'. 불교미술을 총망라한 삼매의 모습을 담아낸 신장식 교수의 개인전 '삼매'가 11월 27일까지 종로구 삼청로 스페이스선+에서 열린다.

### 간다라 미술에서 경주 유적까지

### 삼매에 든 불상 모습 찾아 매진

### 11점 작품에 부처님 자비 담아

정된 묘갈상임을 감상하고 나서다. "당시 금강산을 주제로 작업을 할 때였어요. 고려시대 대표적인 마애불상으로 평가 받고 있는 이 작품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죠. 제작의 주제가 한국의 전통을 그림으로 옮기는 것인데 우리 문화유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교문화 그 중에서도 불상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했죠. 불교는 우리 정신문화와 깊이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 정신은 불상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작가는 국내외의 불교 유적지 여행은 물론 불교 및 인도철학 영상 강의 48강을 쟁겨 듣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롬비니부터 전정각산, 보드 Gaya, 사르나트, 왕사성, 기원정사, 죽림정사, 대원정사, 쿠시나가르, 날란다 유적과 산치대탑, 아잔타, 엘로라석굴 등을 돌아보고 여러 지역의 박물관에서 불상을 친견한 그는 삼매에 이른 불상을 찾아낸다. 그리고 여기서 성도하신 부처님의 표정을 읽어낸다. 여기에 광배로 화려한 우주 전체, 경주 남산의 소나무, 동화사의 비천, 조선시대 별자리 등이 배경으로 탄생한다.

특히 간다라 불상에 조선조기의 천체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각석'을 그려 놓고 그 좌우에는 용주사의 범종을 배치한 작품을 깨달음에 이른 부처님의 모습을 신비롭고도 성스럽게 표현했다. 푸른색 바탕의 별자리는 전 우주를 담은 듯하고 생로병사의 고민을 해결하고 전 우주를 안은 부처님의 모습은 평온하기만 하다. 또한 경주 남산 소나무의 아름다움을 배경으로 한 칠발암 마애석불 또한 그 자연로운 표정이 자못

성스러움을 더한다. 일본 변지사중의 비천을 양쪽으로 표현하고 촛불공양을 배경으로 한 경주 삼화령의 마륜불은 동자승의 표정을 담아낸듯 맑은 미소를 자아낸다.

50대에 이르러 길 위의 수행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신장식 교수. 그는 지극히 깊은 선정(禪定)에 든 불보살을 작품으로 승화해 또다른 예술의 경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끊임없이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작가 역시 수행자와 다름 없습니다. 이렇게 불교의 세계를 공부하다 보니 작품으로 옮기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좀더 시간을 두고 불교 작품을 작업해 보고 싶습니다"

불교 성보박물관에서도 자신의 작품을 전시해보고 싶다고 말하는 신 교수. 그는 앞으로도 불교 유적의 사연을 찾아 그 정신적 의미를 찾아가며 끊임없이 자신의 작품 세계를 개척해 나갈 것이다.

정혜숙 기자 bwjns@hyunbul.com

### 인간은 자연과 함께 사는 존재

### 내 기분이 꽃의 웃음 만들어

여러 꽃이 피는 해초를 심었다고 하니 얼마나 난초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다.

난초는 예전부터 수행의 일환으로 동양 삼국의 많은 스님들이 즐겨 그려온 기품 있는 그림이다. 근래의 우리나라에서도 송광사 방장이셨던 석사자 구산 큰스님이나 동국대 총장을 지내신 퇴경 권상로도 즐겨 그려셨다고 한다.

그런데 난초를 그리며 웃는 난초꽃을 그리기는 무척 어렵다. 난초가 웃는지 우는지 알기도 어려울뿐더러 이 꽃이 확실히 웃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는 더욱 어렵다. 새가 울고, 꽃이 지는 것을 듣고 보기는 쉽지만 웃는 꽃이나 우는 새의 눈물을 보기는 실로 어렵다.

옛날 학동들이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 공부하는 <추구집(推句集)>이라는 책에 보면, 재미있는 글귀들이 많이 나온다. <추구집>은 주로 옛날 오언시 중에 적절한 구절들을 뽑아 한시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한 책인데, 한시는 대림개념을 묘사한 대구법이 그 생명이고 그 대구법이 문학적인 흥취를 느끼게 하는 묘수이다. <추구집>은 말 그대로 시구 안에 그림이 보일 정도로 예술적인 글들이다.

그 <추구집> 안에 '화소성미정(花笑

## 30년 만에 돌아온 '선객' 역사의 웃을 입다

### 10.27 법난위원회, 뮤지컬 '2015 선객' 공연

10.27 법난을 소재로 한 한국형 뮤지컬 '2015 선객'이 관객들을 찾는다. 조계종 총무원과 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주최하는 이 공연은 11월 23일~12월1일 창덕궁 소극장에서 열린다.

진관 스님(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이 대본을 쓴 이 연극은 1982년 '삼일로 창고극장'에서 초연 이후 30년 만에 각색돼 관객들을 찾는다. 이번 작품은 스님의 수행 과정을 그린 작품의 원안을 10.27법난의 현상과 통일로 향하는 희망의 발원을 담아

새롭게 재구성해 주목을 끈다.

예술감독을 맡은 이강열 경시대 교수는 "원안은 두 스님을 등장시켜 문답형의 절제된 시적 언어와 동작으로 선(禪)의 세계를 표현한 작품이었다. 파격적인 구성과 법패를 비롯한 전통음악의 삽입, 그리고 깨달음을 체득하게 되는 과정을 극적 상징성을 더해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작품은 원작을 상당 부분 개작 '10·27 법난'을 기리기 위한 소재로 불교 대중화를 위한 전통 음악극 형식으로 창작

했다"고 전했다.

연극은 총 3막으로 구성됐다. 1980년대 정권에 의한 불교탄압이 진행되고 있는 어느 날, 안기부 조사실에는 한 스님이 고문을 받는다. 그 시간 또 다른 법사 한 명이 고문을 받는다. 그는 스님 중 한 명을 포함하는 거짓 자백을 강요받는다. 이를 거부하다 심한 고문을 당한 법사는 기억을 잃고 결국 서류에 사인을 하고 만다. 세월이 흘러 법사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행복 한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일에 한 스님이 방문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뮤지컬 '2015 선객'의 한 장면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새롭게 태어난 선객의 변신은 반갑다. 하지만 10.27법난의 상처가 2015년 통일로 향한다는 대의적 주제가 어떻게 뮤지컬로 승화 될 수 있을지는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박종철이 연출을 맡았고 배우 박정순, 강승의, 김양화, 유선주 등이 출연한다. (02) 742-7278

정혜숙 기자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쭈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귀사문석(貴蛇炆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 426호, 품목허가 제 09-651입니다.

인간의 기본 체온은 36.5℃인데 1℃ 떨어지면 **저체온(冷氣)**이 되어 **면역력이 30%!** 된다. 피부속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 **두한족열(頭寒足熱)** : 머리는 차갑게 (귀사문석 베개) 발은 못하게 (귀사문석 온열매트)

※ **낮에는 의자나 쇼파에, 밤에는 침대나 요 위에 놓고 하루 24시간 켜주세요!**

■ 제 조 원 : (주)국민메티컬 / 경기 양주시 울정동 115번지 ■ 판 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광명시 광명7동 305-50

■ 문의전화 : **02)2681-8122 선재생활건강(주)** ■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온열매트의 의학적 효과**  
건강한 사람의 평균 체온은 섭씨 36.5℃이다. 그런데 1℃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30% 떨어진다. 즉 냉증 또는 저체온이 되면, 자율신경중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서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구가 줄어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특히 체온이 35℃로 내려가면 암세포가 증가할 수가 있다. (우리 신체에선 매일 3천개~1만 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지지만 면역력 덕분에 암에 걸리지 않는다) 냉증(冷症) 즉 저체온이 되면, 그 증상으로 손과 발이 저리고 무릎이 시리다. 그리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찬 음식을 먹으면 설사로 고생도 한다. 또한 당분, 지방 등 영양소의 흡수율을 떨어뜨리고 고지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 몸은 자구를 세바퀴나 돌 수 있는 9만km의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적혈구가 영기는 현상은 저체온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몸을 따뜻하게 해서 세포 안에 충분히 열이 전달되도록 하면 적혈구의 영기현상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원적외선을 이용해 신체 내부까지 골고루 열을 가하면 즉시 영기 있던 적혈구들이 원상회복 된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예방할 수 있다.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축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현대생활 주택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자연적으로 지기(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귀사문석은 천연의 강력한 기(氣) 방사체이므로 자연적으로 신체에 활력소가 되어준다. 귀사문석은 항균효율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제품의 특징**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이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물상!**  
02)2004-8216  
농협 053-016-289062 (주)현대불교문화사업부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인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주문은 **현물상!**  
02)2004-8216  
농협 053-016-289062 (주)현대불교문화사업부